

인신매매

작성일: 2011. 8. 18 ~ 21.

작성자: 박지혜 (인천 중고등부)

1. 인신매매 - 봉고

“조심해!”

새벽 기도 때부터 주님이 당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도 환상을 볼 때도 꿈을 꿀 때도

같이 있을 때도 계속 당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으나 주님은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계속 “조심해. 넌 다치면 안 돼! 조심해!”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창백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무슨 일 있으시나?’ 생각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3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살고 있지만

동네가 외진 곳이라 위험하기도 합니다.

오후 8시 넘어서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에 갈 때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는 음침한 기분이 들었고

2~4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 봉고차가 보였습니다.

봉고차를 발견하자마자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고

그때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차에서 갑자기 내린 매서운 눈을 한 등치 큰 남자가

미친 듯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그 차 안에는 제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너무 무서워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집이 13층이라 엘리베이터를 탈 수밖에 없어서 주님께

“주님, 무서워요. 저 집에 가야 하는데

엘리베이터 꼭 타고 가야 해요. 어떡해요.”라고 말씀드리자

주님께서 “걱정 마. 나 있잖아.” 하시고

두 개의 엘리베이터 중 오른쪽 것을 가리키며

“저거 타고 가. 빨리 집까지 뛰어가.

서둘러라.” 하셨습니다.

오른쪽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었고 재빨리 탔습니다.

뒤따라오던 남자를 따돌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주님께 여쭙었습니다.

“주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사탄이 너와 나의 관계, 신앙, 섭리,

선생과의 관계를 방해하려는 것이다.

걱정 마. 나 예수가 있으니 괜찮아.

나는 내 사랑하는 신부 못 버린다. 다치게 안한다.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 예수를 버리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주고 양식과 옷을 주고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구해 주는데 왜 모르냐.

주님과 대화하는 중 엘리베이터가 13층에 도착해 집까지 빨리 뛰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왼쪽 비상구에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집까지 힘껏 뛰었고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집에 손님이 와서 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에

집 안으로 재빨리 들어가서 허겁지겁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넌 항상 조심해야 돼.

요즘은 남자고 여자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 아이도 잡아간다.

그들은 사탄처럼 집요하게 잡아가고

성매매 하는 곳과 유흥업소에 팔며

간, 쓸개, 눈 등 몸에 있는 것 다 빼서 팔기도 한다.

“어린 아이는 왜 잡아가나요?”

예수님: 요즘은 아이들이 건강하니

아이들 장기를 꺼내 팔기도 하고,

아이들을 시켜 마약이나 돈 거래를 하기도 한다.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희생당하는 생명이 많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제가 만약 조금 전의 상황을 모면하지 못했다면 끔찍한 일을 당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먼저 사랑도 마음도 양식도 옷도 주는데...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고,

위험한 순간 구해 주는데

날 외면하는 자가 많구나.

내가 맨 먼저 사랑했고,

내가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사랑 주고, 마음 준다.

제 과거의 삶이 부끄러워 주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주님의 심정 몰라 죄송해요.

그 위험한 순간에도 살려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진정으로 맨 처음 사랑을 해 주시고

사랑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심정 알게끔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알리고 선생에 대해 알려라.

늘 항상 조심해. 또 사탄이 방해할 것이다.

내 말 명심해.

2. 인신매매 - 택배

다음 날 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교 후 6시 쯤 엄마가 외출하시며

시골에서 택배가 오니 받아 놓으라 하셨습니다.

이 날은 주님이 잘 안 보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먼저 인터폰으로 확인하며 누군지 묻자

택배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어제 “조심해.” 당부하신 말씀과 무서운 사건으로

택배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묻자 시골에서 왔다고 답하였습니다.

시골에서 택배가 온다 하였기에 문을 열어 주려 했으나

문 앞에 서는 순간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에게 온 택배인지 묻자

뜸을 들이며 알지 못하는 이름을 뱉습니다.

택배가 잘못 왔다고 하니

그 아저씨는 표정이 사탄처럼 돌변하면서

욕을 하며 문을 발과 주먹으로 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경비원과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

욕하면서 문 앞에 침을 뱉고 갔습니다.

저는 다행히 또 그 상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주님이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참아. 그리고 사람 너무 믿지 마.

가까이 하지 마. 길 알려 달라고 하거나

아이들이 엄마 잃어버렸다고 하면 가까이 하지 마.

요즘 할머니, 아이들도 인신매매하는 자를 돕고

돈 받는 일 많다. 바쁘다고 하며 피하여라.

3. 인신매매-봉고

다음날 길을 가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니 무섭게 쩌려보며 뒤따라 왔습니다.

이날은 봉고차가 두 대 보였고

가는 길 앞쪽에 20대 남자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저 앞의 남자랑 거리 좀 두면서 가까이 해.

말은 하지 말고 그냥 뒤따라가다

옆으로 거리를 좀 두며 같이 걸어가.

그럼 저 뒤에 따라온 남자가 그냥 간다.

그리고 사람 있으니깐 괜찮을 거야.

나도 있으니 괜찮다.

그 남자와 거리를 두면서 같이 걸어가자

뒤따라오던 술 취한 아저씨는

저를 음침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그냥 갔습니다.

다행히 저는 또 그 상황을 면했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참아. 내가 도와줄게. 걱정 마.
이 말을 섭리에 알려라.
위험한 상황을 면하려면 나한테 간구해라.
도와달라고 대화하고 나와 더욱 가까이 하면
위기의 상황을 면할 수 있다.

주님께 기도하니 요즘에는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지속된 그 때의 일들은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순간들이었지만
주님 말씀을 되새기며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신부이니 방심하지 말아야겠습니
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방심하지 마! 너희는 나의 신부니
간구하고 늘 나에게 묻고
나와 대화하고 함께하고 기도하라.